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보도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11.27(월) 19:00부터 보도가능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배포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2017.11.27.(월) </div>		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책 임 자</div>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유 영 준(02-2100-2880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담 당 자</div>	최 범 석 사무관 (02-2100-2882)
	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장 임 상 규(02-3145-7150)		정 재 룡 팀 장 (02-3145-7160)
	은행연합회 은행경영지원부장 김 수 연(02-3705-5415)		정 해 민 팀 장 (02-3705-5094)

제 목 : 한-아세안 금융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「駐韓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」 개최

- ☐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은행연합회는 11.27(월)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제3차 주한 아세안국가*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

*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베트남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필리핀, 태국 등 10개국

< 제3차 주한 아세안국가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요 >

- 주최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
 - 일시/장소 : 2017.11.27.(월) 19:00~21:00 / 은행회관 뱅커스클럽
 - 주요 참석자
 - (아세안) 로하나 빈티 람리(Rohana binti Ramli)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 아세안 10개국 대사(캄보디아, 인도네시아 대참)
 - (한국측) 최종구 금융위원장, 최흥식 금융감독원장, 하영구 은행연합회장, 김영선 한-아세안센터 사무총장, 은행장*(14명), 정책금융기관 기관장**(2명)
- * KB국민, 신한, KEB하나, 씨티, SC제일, 기업, 산업, 수출입, 농협, 수협, 부산, 경남, 케이, 카카오
- **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

- ☐ 이번 행사는 한-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'15년 처음 개최('15.8.24.)된 이래 세 번째 열리는 연례 간담회로,
- 양측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우리 금융기관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-아세안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,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‘신남방정책’과 ‘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’에 따라 양측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발언

○ 이러한 맥락에서 한-아세안 금융분야 협력도 한층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

- 이를 위해 우리 금융회사들은 ①현지에서 신뢰받는 투자자와 기업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, ②현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, ③아세안의 빠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

○ 아울러, 금융당국 역시 한국의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, 아세안 국가 대사들에게 협력의 가교가 되어줄 것을 당부

□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MOU체결, 금융협력포럼 개최, 아세안 국가 금융 당국자 대상 장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언급하고,

○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-아세안 양측의 협력·교류활동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언

□ 이에 대해 라울 헤르난데스(Raul S. Hernandez) 주한 필리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‘신남방정책’과 ‘3P* 공동체구상’을 언급하며,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극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

* 사람(People), 평화(Peace), 상생번영(Prosperity)

○ 또한, 아세안은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진출의 교두보인 동시에,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양측 금융기관이 이를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언급

-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금융시장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금융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
- 우리의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아세안 현지시장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아세안 각국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

※ 별첨 : 금융위원장 축사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듣겠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